

720Th



OKKO
지휘 오코 카무
KAMU



RÉMI GENIET
피아노 레미 제니에

PROGRAM

- 닐센 <알라딘 모음곡, 작품 34 중 '오리엔탈 행진곡'
C. Nielsen <Aladdin Suite Op. 34, 'Oriental Festive March'>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장조, 작품 73>
L. V.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in E^b Major, Op. 73>
닐센 <교향곡 제5번, 작품 50>
C. Nielsen <Symphony No. 5, Op. 50>

어둠속에서도 빛나는 음악적 의지

2017.
7. 20. THU.
8PM

KBS홀

2017.
7. 21. FRI.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음악적 의지

일명 '황제'로 유명한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5번>은 당당하고 뚜렷한 어조, 근육질적인 남성적 매력이 넘쳐흐르는 곡이다. 나폴레옹 전쟁기의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쓰여 졌으나 베토벤은 역사의 질곡조차 인간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응변하는 듯하다. 세 개 악장 내내 장대한 기품과 강인한 의지의 힘이 춤추듯 폭발하는 거대한 스펙터클의 협주곡이다.

카를 닐센의 <교향곡 제5번>은 미증유의 대참사인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발표된 음악이다. 수 천 만 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혹한 전쟁은 인류에게 일상 속에 도사린 거대한 실존적 공포의 실체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1악장에 등장하는 작은북의 집요한 강박적 연타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도 문명의 세례를 받고서도 전쟁과 기아, 대량학살, 대공황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세계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음악적 증언이기도 하다. 파편적인 어조로 분출되는 암울한 1악장이 지나면, 대위법과 푸가로 음악적 질서를 재정비한 2악장이 등장한다. 칙칙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갈구하는 인류의 모습이 밤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별빛처럼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다.

PROGRAM

닐센 <알라딘 모음곡, 작품 34 중 '오리엔탈 행진곡'>
C. Nielsen <Aladdin Suite Op. 34, 'Oriental Festive March'>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b장조, 작품 73>
L. V.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in E^b Major, Op. 73>
닐센 <교향곡 제5번, 작품 50>
C. Nielsen <Symphony No. 5, Op. 50>

CAST



지휘자 오코 카무 Okko Kamu
제1회 카라얀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1969)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수석지휘자 역임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교향악단 수석객원지휘자 역임



피아노 레미 제니에 Rémi Geniet
본 국제 베토벤 콩쿠르 우승(2011)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위(2013)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일 드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등 협연